

바스켓볼 브레이크 지난 6R대결서 챔프1차전 해법 찾는 KCC-오리온

잭슨 막아라 vs 에밋 묶어라



KCC와 오리온이 19일부터 7전4승제의 챔피언 결전전에 돌입한다. 14시즌만의 패권 탈환을 노리는 오리온의 중심은 조 잭슨(왼쪽)이고, 5시즌만의 정상 복귀에 도전하는 KCC의 믿는 구석은 안드레 에밋이다.

오리온, 장신선수들에 에밋 수비 전담
득점 줄것은 주고 다른 선수 봉쇄할 듯
KCC는 몰오른 잭슨 2·3쿼터 방어 과제

KCC와 오리온은 19일 전주체육관에서 ‘2015~2016 KCC 프로농구’ 챔피언 결전전(7전4승제) 1차전을 치른다. 정규리그 우승팀 KCC는 창단 첫 통합우승과 2010~2011시즌 이후 5시즌만의 정상 복귀를 노린다. 정규리그 3위 오리온은 통합우승을 이뤄낸 2001~2002시즌 이후 14시즌만의 챔피언 트로피 탈환에 도전한다.

두 팀은 정규리그 6차레 맞대결에서 3승3패로 팽팽했다. 그러나 현재의 멤버로 격돌한 것은 2월 16일 6라운드 경기가 유일했다. 당시 두 팀은 ‘미리 보는 챔피언전’이라는 호평을 들었을 정도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결과는 전태풍이 버저비터 3점슛을 터트린 KCC의 73-71 승리였다. KCC 추승균(42) 감독과 오리온 서일승(53) 감독도 이번 챔피언전을 준비하면서 6라운드 맞대결 내용을 많이 참고할 듯하다.

●오리온, 에밋에게 줄 것은 준다?

KCC 에이스 안드레 에밋은 이날 37점을 쏟아냈다. 1쿼터에만 13점을 넣은 에밋의 득점포는 꾸준히 터졌다. 오리온은 에밋 수비를 센터 장재석(203cm)에게 맡겼다. 장재석이 파울트러블에 걸리자, 장신 포워드 최진수(203cm)를 붙였다. 에밋에게 5개의 3점슛을 내줬지만, 2점슛 성공률을 47%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에밋은 이날

KCC-오리온 정규리그 6라운드 맞대결 주요 기록(2월 16일)		
KCC	구분	오리온
73점	득점(쿼터별)	71점
(23-12-17-21)		(13-18-26-14)
28점	페인트존 득점	38점
17개(40%)	2점슛(성공률)	23개(51%)
9개(41%)	3점슛(성공률)	5개(21%)
39개/11개	리바운드(R)/공격 R	30개/6개
10개	어시스트(A)	16개
5개	스틸	7개
3개	블록슛	2개
14개	실책	8개
0개	속공	6개
에밋 37점	주요 선수 기록	잭슨 20점
· 12R · 5A		· 8R · 2A
하승진 13점		헤인즈 23점
· 11R		· 6R
전태풍 7점		이승현 7점
· 3R · 2A		· 2R · 3A

19개의 2점슛을 시도해 9개를 적중시켰다. 그 덕에 오리온은 2쿼터 중반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추일승 감독이 챔피언전에서도 에밋 수비를 장신 선수들에게 맡기고, 어느 정도 득점은 주돼 KCC의 나머지 선수들을 봉쇄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KCC의 2·3쿼터 약점 해결 방법은?

오리온은 이 경기 전까지 애런 헤인즈와 조 잭슨의 공존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두 선수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했고, 결과는 좋았다. 잭슨은 20점, 헤인즈는 23점을 올렸다. 오리온은 외국인선수 2명이 동시에 출전하는 2·3쿼터 함께 점수에서 44-29로 KCC를 크게 앞섰다. 오리온은 3쿼터 한때 11점차까지 달아나기도 했다. 결국 오리온은 이 방법을 활용해 6강 플레이오프(PO)와 4강 PO에서 6전승을 거뒀다. KCC가 챔피언전 전체를 유리하게 이끌려면 용병 2명이 출전하는 2·3쿼터에 대등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PO 들어 맹활약하고 있는 잭슨에 대한 수비가 KC의 가장 큰 과제다.

●승부의 분수령이 만들 외곽포

6라운드 맞대결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3점슛이었다. KCC는 70-71로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에 나섰다. 에밋에게 상대 수비의 시선이 쏠리자, 전태풍에게 볼을 연결했다. 전태풍은 노마크에서 3점슛을 람에 꽂아 승부를 갈랐다. 반면 KCC보다 외곽 공격력이 좋은 오리온은 24개의 3점슛을 던져 5개만을 적중시켜 성공률 21%에 그쳤다. 정규리그 3점슛 성공률(38.4%)에 크게 못 미쳤다. 노마크 3점슛도 여러 차례 놓쳤다. 챔피언전에서도 간간이 3점슛을 가미하는 팀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6라운드 맞대결에서 입증됐다. 승부를 결정할 중요한 한방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는 3점포가 될 수도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노장 문태중, ‘갇지 못한 꿈’ 첫 챔피언전 우승 도전

추일승 감독 “4강때처럼 해결사 기대”

지난 시즌까지 남자프로농구 챔피언 결전전 3연패를 달성했던 모비스 유재학(53) 감독은 “우승은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감독의 말대로 우승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우승의 영광은 단 한 팀에만 돌아간다.

특히 선수생활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노장들은 한 번의 기회가 매우 소중하다. 국내프로농구 최고령 선수인 문태중(41·오리온·사진)도 마찬가지. 그는 LG 유니폼을 입었던 2013~2014시즌부터 매년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으며 선수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구계에서 ‘문태중이 진지하게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서야 KBL 무대에 섰지만 ‘클래스’는 여전했다. 그는 2013~2014시즌에는 LG를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면서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또 2014인천아시아대运会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돼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남부럽지 않은 경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챔피언전 우승은 경험하지 못했다. 문태중이 동생 문태영(38·삼성)을 유일하게 부

도 했다.

KBL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문태중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에서 정상급 슈터로 기량을 인정받았다. 전성기를 지난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KBL 무대에 섰지만 ‘클래스’는 여전했다. 그는 2013~2014시즌에는 LG를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면서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또 2014인천아시아대运会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돼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남부럽지 않은 경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챔피언전 우승은 경험하지 못했다. 문태중이 동생 문태영(38·삼성)을 유일하게 부

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승’이다. 문태영은 모비스에서 3번의 챔피언전 우승을 경험한 바 있다. 우리 나이로 마흔 둘의 노장인 문태중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

문태중은 두 시즌 만에 다시 ‘2015~2016 KCC 프로농구’ 챔피언전 무대에 선다. 그는 애런 헤인즈, 조 잭슨, 이승현 등 든든한 동료들의 조력자로서 첫 챔피언전 우승에 도전한다. 오리온은 문태중에게 중요한 순간 ‘한방’을 꽂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9일부터 KCC와 챔프를 다투는 오리온은 추일승 감독은 “(문)태중이가 많은 시간을 뺄 수는 없지만 접전 때는 가장 믿을 만한 선수다. 4강 플레이오프 패처럼 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 믿고 있다”며 신뢰를 보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IOC 조정위원장 “평창올림픽 준비 만족”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제6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회가 16일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훌륭한 올림픽을 선보이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와 IOC, 국제연맹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

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을 치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7차 IOC 조정위원회는 10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롯데그룹과 후원계약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6일 “롯데그룹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유통업을 활용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의류와 패션소품, 책

자와 보석, 인형 등 올림픽 공식 인증 기념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경기장 인근과 공항, 터미널 내에 기념품점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후원 규모는 국내 스폰서십 중 최상급 수준이다. 롯데그룹은 대회 지식재산권 활용과 프로모션 우선 접근권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부여 받는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PO행 이끈 OK저축의 ‘시몬 동기부여 전략’

■스토리 발리볼

지난 시즌 치명적 부상에도 “함께 가자”
올해 감각 송별이벤트…시몬 투혼 보답

‘NH농협 2015~2016 V리그’의 키워드는 동기부여다.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이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꼭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있던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선택했는데, 7년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선수구성에 큰 변화가 없던 팀이 동기부여를 통한 긍정적 생각으로의 전환만으로도 전혀 다른 팀이 됐다. 놀라운 변화였다. OK저축은행-삼성화재의 남자부 플레이오프(PO)의 성패를 가른 것도 동기부여였다. 두 팀의 운명을 가른 이벤트가 있었다.

●시몬, 우승을 위해 무릎 인대를 희생하다!

지난 시즌 PO를 앞두고 OK저축은행은 비상이 걸렸다. 팀의 대들보 시몬(사진)의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 예견된 결과였다. 이탈리아리그에서 서부터 좋지지는 않았다. 이런 시몬을 센터와 라이트 겸용으로 썼다. 팀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 이탈리아에선 한 경기에 많아야 공격 점프 10~20번을 하던 선수가 엄청난 하중을 감내하고 뛰어야 했다. 그 헌신 덕분에 팀은 ‘봄 배구’에 진출했지만 탈이 났다. 한국전력과의 PO를 앞두고 있었다. 구단은 시몬에게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사를 맞자고 했다. 시몬은 거부했다. 그 바람에 OK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PO를 포기했다. 그러나 시몬은 인성도 슈퍼스타였다. 마음을 바꿨다. 통증을 참고 경기에 나섰다. 아파서 절뚝이면서도 폭발적 공격을 했다. 창단 2년 만에 우승을 안겼다. 만우절의 기적이었다. 기적의 결과는 시몬의 인대 손상이었다. 뼈 조각까지 함께 돌아다녔다. 재할로는 해결되지 않을 상태가 됐다. 우승의 비산 대가였다.

●“우리는 그런 팀이 아니다”는 한마디에 시몬의 걱정은 사라졌다!

휴가를 보낸 시몬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구단은 급했다. 비자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빨리 수술을 시켜도 시즌 도중이나 경기 출전이 가능해졌다. 아버지와 함께 온 시몬은 “무릎 아파”라고 우리말로 말했다. 이때 일각에선 2년 계약을 했던 시몬의 이적을 검토했다. 시몬의 부상 상태로 봤을 때 출장이 어렵다고 보고 수술 후 다른 리그로 이적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시몬도 그 얘기를 들었다. 수술을 앞두고 구단과 면담하던 자리에서 시몬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 시즌 거취에 대해 물었다. 채우석 부단장은 이렇게 답했다. “시몬, 우리 그런 팀 아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끝까지 함께 갈 생각이다.” 시몬의 표정이 밝아졌다.

시몬이 재활하는 동안 구단은 임시로 쓸 외국인선수를 알아봤다. 시몬을 코치로 등록해 놓고 몇몇 선수들을 테스트했다. 모두 기대에 못미쳤다. 훈련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은 “무리해서라도 내가 더 빨리 준비해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단은 그 결정에 고마워



했다. 그렇게 해서 시몬은 올 시즌 개막전부터 출장했다.

●감사의 선물로 준비한 송별식, PO의 향방을 가르는 변수가 되다!

완벽하게 시즌 준비를 하지 못한 탓에 처음에는 고전했다. 점프가 예전 같지 않았다. 2라운드 막판부터 정상으로 돌아왔다. 팀이 선두권으로 치고나가는 시점과 일치했다. 5라운드 중반 또 다시 시몬의 체력이 떨어졌다. 센터 이민규도 다쳤다. 결국 현대캐피탈과의 정규리그 우승 경쟁에서 밀렸다.

5라운드 중반, 구단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이별하는 시몬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구상했다. 2년간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에게 보답할 방안을 찾았다. 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외국인선수를 위한 송별 세리머니가 없었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수많은 외국인선수가 왔다 갔지만, 시즌이 끝나거나 계약을 마치면 미련 없이 작별했고 서로 남남이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송별식이었다. 당초 PO를 마친 뒤로 생각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이벤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구단은 많은 준비를 했다. 그동안의 활약 장면을 담은 영상에 시몬을 위해 스페인어 자막까지 넣었다. 3월 우리카드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을 위해 코트에 들어설 때까지 시몬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다.

그리고 깜짝 이벤트가 열렸다. 시몬은 감동했다. 외국인선수를 위해 배려해준 마음씀씀이에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봄 배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자각했다. 시즌 계약은 다 끝났고, 다음 시즌에는 브라질리그에서 뛰기로 결정한 시몬이 포스트시즌에서 최선을 다하는지의 여부는 온전히 선수 자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다. 시몬의 눈물을 본 김세진 감독은 희망을 봤다. PO를 앞두고 시몬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최고의 이벤트였음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시몬은 송명근과 미장원을 찾았다. 턱수염을 팀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염색했다. 팀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준 시몬은 삼성화재와의 PO 2경기에서 펄펄 날았다. 공격 점유율 46%, 성공률 57%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이상의 수치를 작성했다. 2차전 4세트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시킨 점수도, 시리즈의 운명을 가른 1차전 1세트 마지막 점수도 시몬의 스파이크에서 나왔다.

공심위상(攻心爲上) 공성위하(攻城爲下),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상책이고 상대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라고 했다. 삼성화재 신지용 단장은 “누가 그 행사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의 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3체급 뛰어넘는 월장매치…권아술-이돌희 붙는다

로드FC 라이트급 챔프 VS 미들급 강자
5월 14일 ‘샤오미 로드FC 031’서 대결

종합격투기 ‘한국판 코너 맥그리거 vs 네이트 디아즈’전이 마침내 성사됐다.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술(30·암구정집)이 ‘미들급 강자’ 이돌희(27·브로스집)를 상대로 3체급을 뛰어넘는 ‘월장매치’를 펼친다.

‘뉴웨이브 MMA’ 로드FC(대표 정문홍)는 16일 권아술과 이돌희가 5월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샤오미 로드FC 031’에서 맞붙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권아술은 라이트급(-70kg)으로 미들급(-84kg)인 이돌희와는 3체급 차이. 두 선수의 평소 체중이 라이트 헤비급 한계체중인 93kg을 넘어서 무제한급 논타이트전으로 진행된다. 권아술로선 라이트급과 웰터급, 미들급 등 3체급을 뛰어넘는 경기다.

권아술은 국내 라이트급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수다. 2006년 XTM 격투기 서바이벌 쇼 ‘Go! 슈퍼코리안’ 시즌2에서 이름을 알렸다. 2014년 8월 일본의 쿠메 다카스케(29)를 판정으로 누르고 로드FC 2대 라이트급 챔피언벨트의 주인이 된 이후 지난해 3월 전 스피릿MC 챔피언 이광희(30·익스트림 컴뱃)를 TKO시키며 1차 방어에 성공했다.

‘광주형’ 이돌희 역시 미들급에서 둘째가라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술(왼쪽)이 5월14일 ‘로드FC 031’에서 3체급을 뛰어넘어 미들급 강자 이돌희(오른쪽)와 맞붙는다. 사진제공 | 로드FC

면 서러워할 강자. 로드FC 미들급에서 1승2패 1무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로드FC 012에서 일본 판코라스 챔피언 가와무라 료를 꺾으며 강자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로드FC 3대 미들급 챔피언이자 5전2승3패의 UFC 출신 후쿠다 리키(35·일본)와 대등한 경기를 펼쳐 실력을 인정받았다.

권아술과 이돌희는 1년 전 권아술이 라이트급 챔피언 1차 방어전을 앞두고, 미들급을 가장 약한 체급으로 거론하며 ‘결투’를 신장해 악연이 시작됐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와 SNS 등에서 도발적 언어를 사용하며 입씨름을 해왔다. 결국 두 선수는 구체적인 파이트머니 및 경기 조건까지 제시하며 대화사에 매치를 요청했고 로드FC는 이를 받아들여 ‘월장매치’가 성사됐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